

“소통창구 막혀 마음 아프다”

■ 초유의 ‘비구니승려대회’ 왜 열렸나

“집행부 적법하게 구성
불만 있다면 회칙에 의거
회장선출 문제 해결해야”
:
“참종권 확대 권익향상
전국비구니회 거듭나는
발전적 계기로 삼아야”

열린모임 ‘비대위’ 꾸려
화합엔 시간 걸릴 듯...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발족해
서 47년간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비구니모임이 등
장하면서 비승가적 분쟁이 일어났
다.”(전국비구니회)
“3·16 결의대회는 현 전국비구
니회 집행부의 잘못된 총무행정을 바
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잘못을 방지
하는 것은 비구니회의 발전을 침해
하는 것이다.”(열린비구니모임)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소속 스님
600여명이 동참한 ‘3·16 전국비구
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
리기 사흘 전인 3월13일, 두 단체
가 잇따라 낸 성명서 내용이다. 열
린비구니모임 결성은 지난해 9월
십시된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

원 선출과 관련 전국비구니회 운영
위원회의 행보를 문제 삼으면서 출
발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종회의
원 선거 직후 지난해 10월부터 최
근까지 6개월간 끊임없이 문제제기
를 해왔음에도, 전국비구니회 집행
부가 개선의지가 없어 역사상 유래
없는 결의대회까지 단행했다고 주
장했다.
결의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서울
강남의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불허로 이
날 폐쇄됐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4
일자 공문을 통해 열린비구니모임
측에 “전국비구니회관은 화합을 목
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지 분회를
분열시키거나 부당하게 임원과 위

원회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될 수는 없다”며 폐쇄를 예고했다.
결의대회 당일 전국비구니회관이
잠겨 있자, 대회 참석 비구니 스님들
은 회관 앞마당과 주차장 진입로 계
단 등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이 자
리에 함께한 전 전국비구니회장이
자 청도 운문사 회주인 명성스님은
“용서를 수행으로 삼고 결자해지하
는 마음가짐으로 성찰하는 결의대
회를 열자”고 하면서도, 비구니 공
용법당을 걸어 잠근 전국비구니회
를 크게 경책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서 전국비구니회에 촉
구한 결의사항은 종단법이나 전국비
구니회칙에 준한 법적 효력이 없다.
전국비구니회장을 불신임하고 운영

위원장을 불인정하는 등 이날 만장
일치로 결의한 사항들은 비상대책위
가 공식 추진한다고 해도 법적 강제
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대회
는 전국서 수백 명의 비구니 스님들
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전국비구
니회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
선을 촉구했다는 데 종단 비구니사
(史)에 기록될만하다.
일각에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
권 확대와 권익향상으로 인해 그동
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돼온 전국비구니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발전적 계기로 삼아야 한
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의대회에 참
석한 한 비구니 스님은 “한국불교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지난 1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앞마당에서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한 가
운데 비구니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 위상이 높아지고 비구니 스님들
의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비구
니 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종회의원이나 비구니회 집행부 선
출에 엄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같
다”며 “서로 터놓고 대화해서 깊은
부분을 드러내고 화합하기 위해 결
의대회에 참석했는데 소통창구가
막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결
의대회에 참가한 또다른 스님은 “수
행과 포교를 내려놓고, 강의와 공부
를 내려놓고 순전히 자비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
인 것만으로도 전국비구니회는 마
음을 열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열린비구니모임이 비상대
책위까지 꾸려 구체적인 행동을 선
언한 이상 돌로 나뉜 전국비구니회
의 화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
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 한 핵
심 관계자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는 회칙이 정한 방법에 의해 적법
하게 구성됐다. 불만이 있다면 회칙
에 의거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
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처
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
위는 전국비구니회의 명예와 위상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지난 1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문재인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
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정치, 고정된 것이 없어 통합 위한 정치해 달라”

총무원장 스님, 문재인 대표에 ‘중도’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
표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한 정
치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
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
민주연합 강창일·정세균·김영
록·이학영·임수경 의원 등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당 대표 취
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
넌 뒤, 서장의 ‘도무방소 명대
승심(道無方所 名大乘心)’을 인
용해 국민 통합과 나라의 안정,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무방소
명대승심이라는 말처럼 정치라
고 하는 것은 일정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 때문에 대승의 마음
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대
승적으로 양보하고 합의하기

위해서는 중도적 입장을 갖춰
야 한다. 중도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너와 나 모두에
게 이로운 것이다. (정치 현안
을) 중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
도록 인내를 갖고 국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대
표를 맡게 되어 인사를 드리고
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가르침
을 얻고 싶어 오게 됐다. 정치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
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
다”며 “(통합을 위해) 종교가
특히 조계종이 그 역할을 잘 해
주셨다. 쌍용차, 세월호 참사 등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많은 역
할을 해주셨다. 특히 화쟁위원
회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를 위
한 역할도 해주셨다. 새정치민
주연합도 국민 통합을 위한 정
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더 향상된 승가교육 위한 발판”

교육원, 6대 집행부 ‘사업백서’ 발간

종단 승가교육 변천사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조계
종 교육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진행했던 교육 불
사의 내용을 정리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함께 한 제6대 교육원 사업
백서>를 펴냈다.
3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크
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진단과 과제’로 6대 교육원이 출범
하면서 승가교육 개혁의 목표를 ‘사
회와 역사에 부응하고 자비를 실천
하는 승가교육’으로 설정하는 과정

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발표됐던 종
정제하의 교시와 승가교육진흥위원
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담화문, 승가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내용
이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진단과 제언으로 6대
집행부에서 사업별로 추진한 업무
와 성과를 정리했다. 출가제도의 다
변화, 행자교육의 체계적인 매뉴얼
확립, 기본교육기관 표준교육과정
도입,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
확대시행, 연수교육의 전면 실시, 승
가고시 전형개선, 각종 장학제도 활

성화, 교육아사리 등 전문연구인력
지원 및 관리 확대 등을 일목요연하
게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6대
교육원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 앞
으로의 방향을 다룬 것으로, 불교신
문에 9회에 걸쳐 연재된 ‘6대 교육
원 평가와 과제’ 기사도 함께 수록
돼 있다.
백서발간편찬위원회는 “제6대 집
행부의 사업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방점이 아니라 7대 집행부의 사업
으로 회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향상된 승가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했다.

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불교인재 양성에 도움됐으면”

만오스님, 장학금 2억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탁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스님(사
진)이 평생 모은 2억원을 지난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으로
쾌척했다. 만오스님은 이날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에게 장학기금을 전
달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스
님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관
음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좋은
뜻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서
서 감사드린다”며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
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오스님은 부산 도원사를 창건한
이후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왔다. 겨울철에는
나무를 때서 생활하고,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신장이 좋지 않음에도 장
학후원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2
년 종비생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에
일조했고, 부산 해동고와 구덕고등
학교도 후원했다.

여현경 기자

“공청회 서명운동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 회견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지난 1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청
회, 서명운동 전개 등 향후 활동 계
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스님들은 “총무원
장 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불사”라며 “기자회견을 계기
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의지를 확

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
원 집행부와 종책모임 불교광장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제출 △
직선제 실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총·제가 단
체와의 확대회의 개최 정례화 △정
기적인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확
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무원장 직선제가 왜 이 시
대의 종단 과제인가?’, ‘총무원장 직
선제 실현에 따른 주요 쟁점 대안’
등을 주제로 올해 3차례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엄태규 기자

BTN 개국 20주년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

www.btn.co.kr

2015년 3월 7일
BTN불교TV의 로고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자들의 진정한 대표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BTN